

'서리집사 임명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드러 감사 충만, 사명감 충만...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 다짐



본교회 서리집사 임명예배가 12월 18일(주일) 오후 3시 예배 시간에 각 성전에서 동시에 드러져, 많은 남녀 성도가 귀한 서리집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임직식에서 당회장 조 목사님은 집사의 직분은 주님과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확실하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어떤 봉사의 임무라도 맡을 수 있다는 일종의 인정서라고 강에 드러져, 많은 남녀 성도가 귀한 서리집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임직식에서 당회장 조 목사님은 집사의 직분은 주님과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확실하고

해 주셨다. 이어서 조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은 위관급 장교로 임관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임자의 정병이다. 여러분으로 인해 교회는 이제 더 강력한 영적 전투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는 지혜와 권능을 힘입고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기도해 주셨다. 이어서 조 목사님은 임직자와 성도들로부터 서약을 받고 임직을 공포하신 후 임직자를 대표한 최대집 집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셨다. 임직식이 거행되는 동안 교역자와 성도들은 한마음 되어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교회를 섬겨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임직을 축하해 주었다. 임직자들은 받은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께 칭찬 받고 성도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인정을 받는 집사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조 목사님의 축도로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던 이날 임직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본교단 사이버 신학연구원 · 목회대학원 졸업감사예배 "성령 충만,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짐



본교단 사이버신학연구원(제6회)과 사이버목회대학원(제3회) 졸업감사예배가 지난 12월 15일(목) 오후 2시 우리 교회 아가페성전에서 드러져, 졸업생들은 학업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전심전력하여 복음전파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졸업예배는 총회 신학원 학감 윤기석 목사님의 사회

로 시작되어 대학원 교수 노재성 목사님의 대표기도, 강태원 목사님의 성경봉독, 신학원 원장이신 당회장 조 목사님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복음사역자 교육훈련의 핵심'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복음사역자는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다운 교양과 품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이를 명심하고 그동안 교육받은 기반 위에서 앞으로 더 발전하도록 힘쓰며 헌신하도록 당부하셨다. 이어서 윤기석 목사님의 학사보고 후, 조용목 목사님께서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시며 격려해 주셨다. 계속해서 총회장 김병목 목사님의 상장 수여, 직전총회장 신재영 목사님과 대학원 교수 김용덕 목사님의 축사와 권면이 있는 후 이영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도,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윤전,전주요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김포,경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주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파이어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복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월 8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제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밝고 편안한 새집을 주시고, 보석같은 며느리를 보게 해주셨으며, 귀한 권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 지영희 -

할렐루야!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1남 4녀 중 장녀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뇌출혈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인사말 한 마디를 하지 못한 채 아버지와 이별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저와 동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어렵게 생계를 이어 가시며 우리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전도하여 우리 가족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1년 쯤 되어서 생활의 염려로 인해 어머니가 더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고 그런 어머니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중단하였습니다.

저는 시골 고향 마을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은행에 취업하였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토요일 오후, 그와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려는데 갑자기 "내일은 교회로 와요" 하였습니다. "왜요?" 하고 묻자 자기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면서 자기를 만나려면 교회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단지 그가 좋아서 그를 만나려고 가끔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상연은행 안양지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밖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그치지 않아 밖에 나가보니 건물 지하에 교회가 들어선다면서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개척 당시의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인 당시 비서실 전도사님이 매일 올라오셔서 교회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 직원들

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몹시 궁금하여 내려가 보았더니 바닥에 스티로폼이 깔려 있고 성도님들이 그 위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교회당 모습이 아니어서 그때는 실망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또 전도사님이 대화할 때 자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와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셔서 '교회에 다니면 못하고 안 하는 것이 참 많구나' 하며 교회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기를 차일피일 미룬 채로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루하루 몸이 몹시 피곤하였고 여러 가지 잔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5분마다 박카스 한 병을 마시며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한 집사님의 도움으로 드디어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의 수요 저녁예배에 참석하여 결신하였습니다. 그날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을 따라 함께 찬송하는데 눈물과 콧물이 밤백이 되어 끌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는 영영 울면서 "주님, 이 죄인이 이제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는 이후 제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1986년도, 그렇게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결신한 그날부터 저는 신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손을 높이 들고 어떤 성도님보다 큰 목소리로 "아멘!" 하며 저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 더이상 박카스를 마시지 않고서도 근무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한 번에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주시는 구역장, 수구역장 직분을 힘써서 감당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고 싶어서 모시고 살던 시어머님에게 하락을 구했으나 완강하게 안된다고 하셔서 2년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형님택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섬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도 모두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며 성가대에서 봉사하여 저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였습니다.

저는 제 자녀를 살뜰히 보살피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자녀를 보살피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셔서 큰딸은 이화여대 성악과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독일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지금은 결혼을 하여 시댁이 섬기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믿음과 품성이 좋은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가 고등학교 생활 때부터 신실한 사위와 며느리를 보기 위해,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과의 혼사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두 사돈 집안이 모두 3대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가정이어서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오래 전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살던 집을 팔고 임대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다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 해 드디어 저희 부부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섬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좋은 환경의 집을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하여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무한히 영광스러운 것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번엔 우리 교회의 권사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남편이 그동안 조금씩 개인적으로 받은 돈을 저에게 주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리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동안 예배 시간에 즐기고 있던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인 취미생활은 안 된다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던 저는 그날 남편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외롭고 삶이 고달팠던 저에게 사랑이 무한하신 '아빠 아버지'로 찾아오셔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동안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이 갈수록 저를 더 신령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께, 속도속 충성을 다하며 더 열심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진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길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 (하안동)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길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신촌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동 : 수원시 영통구 영동로 418 (영동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산로 70-9 (내산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원평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한촌길27번길 9-8 T. 031-684-3731 천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섬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39-11(광동동) T. 055-312-3731 인천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촌로41번길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흥로102번길 56(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 041-667-3731 출전 : 수원시 팔달구 정안로 하물로 55(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민로 123(재운동) T. 041-9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명치읍 방현동1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북1길 36(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원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정읍시 산서면 성계로2(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	--	--



은혜와 진리교회 조종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62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375장 (새찬송가 331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흑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도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좃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 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좃겠 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를 듣는 자에게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결단을 요구합니다. 복음에 대한 각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① 믿는 자 ② 호의적이지만 믿지 않는 자 ③ 무관심한 자 ④ 거부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호의적이지만 믿지 않는 자와 무관심한 자의 마지막은 거부하는 자와 동일한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대별(大別)됩니다. 복음의 근원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자격 미달이어서 탈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 보면 크게 귀중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을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참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의 57절, 58절에는 **“길 가실 때에 흑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도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사자를 ‘어떤 사람(흑이)’이라고 하였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누가복음 9장 57절~62절 강해 설교”

서기관’이라고 그 신분을 밝혀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서기관들은 대체로 예수님에 대하여 괴롭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서기관의 직위를 가진 사람은 거의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경에 빠트리려고 궁리하며 접근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셨습니까?”(요 8:3-5)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대답을 재촉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때에는 서기관들이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의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강구한 주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게 한 뒤 산헤दन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심문하고 사형을 결의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그들과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취하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나름대로 내린 판단은 이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용어는 히브리어의 ‘랍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보니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까이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차대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며 긍정적일 태도로 접근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느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한 서기관의 태도에서 다른 한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정지적인 메시아인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활약으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고 다윗 시대의 영광과 번영을 회복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측근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출세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심하고 예수께로 와서 자청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도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서기관에게 몹시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우나 새 같은 하찮은 짐승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일정하게 유숙할 집도 없다는 말씀이 그에게 무엇을 각오하라는 뜻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거처할 곳도 없는 빈천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잡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나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7-11)라고 말씀하신 분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얻게 될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신앙을 내동댕이쳐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때로 곤란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를 감내하면 그로 인해 얻게 될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중국적으로 손실과 피해로 마감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더 큰 유익과 영광을 예비하지 않고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 4:17)라고 성경에 언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요동치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59절, 60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좃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앞의 서기관은 자진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동기가 자발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시대인 오늘날에는 대체로 자발적 혹은 다른 사람의 권고(勸告)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전도사역과 예수님을 믿고 따름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의 권고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전도자의 권고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에게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 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 6:44)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앞에 등장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칭호로 불렀는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마태복음에는 “주님”이라는 호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나 사실은 그 호칭이 입에 붙은 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다음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라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과 “나로 먼저”라는 말은 결맞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는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으로는 “내가 먼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하였습니다. 그의 부친이 공교롭게도 지금 죽어 장사지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부친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집에 머물러 부친을 봉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히 행해야 하는 인륜(人倫)입니다. 심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 봉양을 핑계로 삼아 주님의 부르심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사역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시기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을 하도록 허락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바로 나서도록 명하시는 데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육신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시체가 다른 시체를 장사하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성경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엡 2:1)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지 못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명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사지내는 것은 언제라도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회를 잃고 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다시는 그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루는 사이에 그에게 죽음이 닥치면 영영히 기회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육신의 죽음에 이르기 전에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었지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대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관련된 일을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먼저 행하면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뒤 바꾸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의 61절, 62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좃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스스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진하여 예수님에게 나아와 요청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좃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하였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러나”라는 말은 묘한 힘을 가지고 바른 결단을 지연시키고 드디어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나’라는 말을 매우 긍정적인 방향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연결고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히브리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왕 앞에서 대담한 말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까닭에 고발당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네흐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그 금 형상을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나? 만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형상 앞에 기꺼이 엎드려 경배하면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왕은 그 세 사람이 뛰어난 인재여서 죽이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회유하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세 청년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도 아니하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6-18). 여기에 ‘그도 아니하실찌라도’라는 표현에 ‘그러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입니다. 실록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 내시지 않을 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러나’라는 말은 요지부동의 강렬한 믿음을 나타내는 매우 효과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좃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좃겠습니다.”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데 ‘마는’이라는 보조사를 덧붙였습니다. 이를 다수의 번역에서 ‘그러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가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주 고약합니다. 이는 자기중심의 변명과 핑계 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족을 작별케 허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가족의 동의를 얻어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들의 의사를 타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와 대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형제가 반대하면 형제와 사이를 나쁘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핑계를 삼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를 해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인도되어 재판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하여 보니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문제이고 유대인들의 음모로 비롯된 것으로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보니 바울의 무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함을 선포하고 바울을 2년 간 구류 상태로 방치하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바울이 고소당한 것이 정치적 범죄나 어떤 실정법 위반 때문이 아니라 단지 종교문제 때문임을 알았습

니다. 그래서 바울을 종죄인에게 하듯 강압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었습니다.

벨릭스가 이처럼 바울을 마냥 구류하여 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적 이유입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습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총독과 친분을 나누고 자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도록 만드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 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였습니다.

그 강론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워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바울의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부르마 하고 내곤 했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새 이년이 지나 벨릭스 총독이 해임되고 베스도가 후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라고 결단의 지연을 위한 핑계를 사용하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행에 처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좃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는 앞을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갈면 밭이랑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체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조언을 해줄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독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다른 사람과 의논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반연은 “신자는 등에 갑옷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뒤로 돌아서면 공격하는 사단의 화살이 날아와 등에 박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단을 연기하거나 핑계거리를 찾는 단서로서의 ‘그러나’라는 말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생각은 가차 없이 내버려야 합니다. 숭고한 목적, 영원한 목적을 수단으로 삼으면 세속적이고 무속적인 기복신앙인이 되어 버립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뒤바꾸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대하여 “주여 나로 먼저”라는 버릇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는 인본주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마땅히 할 일, 곧 해야 할 일의 실행을 지연시키는 핑계로 사용하는 ‘그러나’라는 단서를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은 혹 자신이 신앙의 목적을 수단으로 여기는 일이 없는지, 주님의 요구에 대해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여 나로 먼저”라고 친신하지 않는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마땅히 그리고 곧 해야 할 일을 지연하려고 “그러나”라는 핑계 단서를 버릇처럼 사용하지 않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